원인과 결과

사람이 평생 한 번쯤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엔 두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존재하시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그 중간은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유신론자는 있다고 말합니다. 불가지론자는 증거가 부족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하고, 회의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는 애초에 확실히 증명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실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증거’를 찾고, 그걸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충분한 단서를 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증거는 실제로 있을까요? 유신론자들은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신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죠. 다만 여기서 ‘입증하다’라는 말이 꼭 과학 실험처럼 보여주고 재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감자 자루가 정확히 10파운드인지, 심장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지 같은 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측정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어떤 사실들은 그렇게 직접 확인하긴 어려워도, 여전히 ‘진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에서도 ‘겉보기상 명백한 사례(prima facie cas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모이면, 그 사실이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여겨지죠. 그리고 특별한 반박이 없다면, 그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간주됩니다. 유신론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그런 수준의 강력한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그중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원인과 결과 - 우주론적 논증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시도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주론적 논증’, 다시 말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아주 단순한 전제에서 출발해요.

“우주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 그 존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우주가 존재한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신론자든, 불가지론자든, 그 누구든 간에 ‘우주는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이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걸까?” 어떤 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존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외부의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는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의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주는 외부의 어떤 원인에 의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과학이 말해주는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인 법칙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물리적인 결과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원인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일이 ‘툭’ 하고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기는 건 말이 안 되죠. 또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원인보다 클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개구리가 연못에 풍덩 뛰어든다고 해서 강 전체가 흙탕물이 되진 않죠. 파리 한 마리가 책상 위에 앉았다고 해서 책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도 없고요. 이런 건 '적절한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볼 때마다, 그에 걸맞은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질문에 대한 가능한 대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주는 영원하다 — 처음부터 항상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 —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생겨났다. 우주는 영원하지 않고, 스스로 생겨난 것도 아니다 —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혹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진지하게 고민해볼 만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하나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주는 영원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편한 생각은 이겁니다. "우주는 그냥 원래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거야." 이렇게 믿으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같은 질문을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처음 원인'—즉 하나님에 대한 필요도 없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 과학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은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주에는 분명한 시작이 있었고, 언젠가는 끝도 올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열역학 법칙이에요.

이건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기본 법칙 중 하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열역학 법칙은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진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 열역학 법칙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이 법칙은 우주가 점점 닳고, 소모되고, 무질서해지고 있다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엔트로피'예요. 이건 물질이나 에너지의 질서 정도, 즉 얼마나 잘 정돈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 값이 점점 커진다는 건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흐트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우주가 완전히 '소모'되어서, 더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지는 상태가 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열적 죽음(heat death)'이라고 부르죠.

이 법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주에는 시작점이 있었다. 에너지가 처음엔 가득 찬 상태였다는 거죠. 언젠가는 끝이 올 것이다. 에너지가 다 흩어져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우주는 마치 태엽을 감아 작동하는 시계와 비슷해요. 한때는 완전히 감겨서 힘차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점점 풀리면서 멈춰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주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도, 끝도, 닳는 일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우주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실제로 NASA에서 활동했던 과학자 로버트 재스트로(Robert Jastrow) 박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 과학은 우주의 영원한 존재를 부정한다."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생겨났는가?

과거에는 이런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신뢰받는 과학자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당시엔 과학자든, 일반 학생이든, “어떤 물질적인 것이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상식처럼 알고 있었죠. 우주는 '만들어진 것'이지, '스스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주장에 반대할 여지도 없을 만큼,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주가 분명히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며, 시작이 있었고, 그렇다면 스스로보다 더 위대한 원인이 존재했어야 한다는 증거들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 일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우주가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생겨났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은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물리학 원리 자체가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 일부는 이 주장을 굳이 옹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명백히 열역학 제1법칙(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과학자 로버트 재스트로(Robert Jastrow)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無)에서 물질이 생겨난다는 주장은, 과학에서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는 개념—즉 물질과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보존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물질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물질로 바뀔 수는 있지만, 우주 전체의 물질과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확고한 과학적 사실을 거스르는 이론을 받아들이긴 어렵다.” 게다가 과학이란 건 본질적으로 관찰, 재현 가능성, 실험적 데이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생겨났다”는 주장에 대해 실험적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하면, 그 주장자들조차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주는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은 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터무니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창조되었는가?

우주에는 분명한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 시작에는 원인이 있었을까, 아니면 없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결과이며, 모든 결과는 반드시 적절한 원인을 필요로 한다. 결과가 원인보다 클 수는 없고, 원인 없이 갑자기 생겨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역시 그에 걸맞은 ‘원인’을 가져야만 하죠. 정리하자면, 우주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생겨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남는 유일한 설명은, 우주는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 혹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원인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a)우주보다 먼저 존재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존재하는 즉, ‘영원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첫 번째 원인이어야 합니다. (b) 우주보다 뛰어난 능력과 성질을 가진 존재여야 하며, (c)우주와는 완전히 다른 본질을 가진 존재여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볼 게 있어요. 만약 진짜로 과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無)’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세상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곧, 무언가가 '처음부터, 영원히' 존재해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존재'는 어떤 성질일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물질, 2. 마음(또는 정신). 이 외에 다른 범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논리 1 (물질 vs 마음)

A.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이거나 마음(정신)이다.

B. 지금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어떤 것은 영원히 존재해왔어야 한다.

C. 따라서, 물질이든 마음이든 둘 중 하나는 영원해야 한다.

D.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

E. 그러므로 결론은, 마음(정신)은 영원하다.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논리 2 (의존적 존재 vs 독립적 존재)

A.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존적이거나 독립적이다.

B. 우주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존적인 존재다.

C. 의존적인 것은 반드시 독립적인 존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D. 따라서 우주는, 어떤 독립적이고 영원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

예전에는 많은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그냥 뇌의 기능일 뿐이야. 뇌는 물질이니까 결국 마음도 물질이지." 이런 입장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물질로만 설명된다고 보는 시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더이상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존 에클스 경(Sir John Eccles)이라는 유명한 생리학자의 실험 결과 때문입니다. 에클스 박사는 인간의 뇌에서 '신경 시냅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뇌의 특정 부위, 특히 보조 운동 영역이 단지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의지만으로도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즉, 실제로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의도'를 갖는 것만으로도 뇌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물질의 작용으로 마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에클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음과 뇌는 도서관과 사서의 관계 같다." 도서관이 책을 담고 있는 '물질적 공간'이라면, 사서는 책을 정리하고 활용하는 의식적인 존재죠. 둘은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그의 연구와 철학적 해석은 과학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와 함께 쓴 책 『자아와 뇌(The Self and Its Brain)』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연구들은 "마음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그리고 "정신적 존재가 우주와 인간의 근본적 기반일 수 있다"는 주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주가 존재하고, 또 그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걸 오직 '물질'만으로 설명하려는 방식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우주와 질서는 단순히 시간, 우연, 그리고 물질 자체의 성질에 의해 생겨났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물질을 넘어서서 어떤 다른 요소—즉 '지성'이나 '의도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쪽은 우주의 질서가 단순한 우연이나 물질의 성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어떤 목적과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모델의 핵심적인 차이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a) 시간, 우연, 물질이라는 자연적인 요소들만으로 지금의 질서가 생겼는가?

(b) 아니면, 설계와 창조, 조직 그리고 '마음'과 같은 지적 특성이 작용했는가?

사실 우리가 살펴보려는 질문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교한 우주와 생명체의 질서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 역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1. 질서는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다.

즉, 물질 자체로는 설명할 수 없고, 물질 밖의 어떤 지적 존재가 질서를 부여했다는 설명입니다.

2. 질서는 물질 안에 본래부터 존재한다.

즉, 특별한 외부 개입 없이, 물질 자체가 자연스럽게 질서를 만들어냈다는 입장입니다. 이 두 설명 중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논리와 증거를 따라가며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서란 원래 물질 안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 어떤 설득력 있는 증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증거들은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한, 독립적이고 영원하며 스스로 존재하는 '마음(정신)'의 존재를 크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론자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Law of Cause and Effect)이 내포하고 있는 명백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법칙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회의론자들은 이 법칙에 반대하며 다양한 반론들을 내놓아 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자기모순이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결국 모든 걸 '최초의 원인(First Cause)'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갑자기 멈춰버린다. 그건 앞뒤가 맞지 않다." 이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최초의 원인'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만은 원인 없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건 모순이다. 만약 모든 것이 설명이나 원인을 필요로 한다면, 왜 이 '최초의 원인'만은 예외가 되는가? 그리고 이 '최초의 원인'이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있다면, 왜 다른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대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한한 원인의 연쇄(infinite regress)"는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원인 없는 결과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구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고, 그들은 옳았습니다. 무언가가 '존재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실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건 '원인과 결과의 법칙 자체'가 아니라, 그 법칙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설명한 버전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모든 것은 반드시 원인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은 불완전한 설명입니다. 진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질적인 결과(material effect)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원인(adequate cause)을 가져야 한다.” 즉, 이 법칙은 단순히 "모든 것"이 아니라, **'물질적 결과'**에 한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 처음의 시점에는, 물질이 아닌(non-material) 순수한 ‘최초의 원인(Pure First Cause)’이 반드시 존재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우주론적 논증’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서,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주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적절한 원인’도 있어야 합니다.

과학자 R.L. 와이송은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영국의 스톤헨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스톤헨지는 고대에 세워진 구조물로, 돌들과 구멍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어 천문학적 관측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누가 “우연히 생긴 거야”라고 생각할까요?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명백히 의도된 설계의 결과라는 사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주와 생명을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그 복잡성과 질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도,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으로 생겨났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스톤헨지는 바람과 비, 자연의 힘이 오랜 시간 작용해서 우연히 생긴 거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마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스톤헨지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설계된 우주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이성적인 존재라면, 이 질문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기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지성(intelligence)을 가진 존재의 의도적인 설계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주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배우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진화론은 여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노먼 가이슬러(Norman Geis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인은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결과에 줄 수 없다. 내가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생각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성은 비(非)지성에서 나올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성과 이성을 가졌다면, 그건 분명히 지성을 가진 어떤 ‘원인’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론적 논증’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말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결과는, 반드시 적절한 원인을 필요로 한다.” 지금 우주가 존재하고, 생명이 존재하며, 인간은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결과에 걸맞은 ‘충분하고 적절한 원인’은 누구일까요? 결과는 원인보다 클 수 없고,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과 사랑, 도덕과 지성을 설명하려면, 그 원인은 반드시 살아 있고, 지혜로우며, 도덕적이고 사랑이 풍성한 존재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짧은 구절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자 궁극적인 원인, 우주와 생명의 첫 번째 원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2강 하나님의 존재 질문지 (원인과 결과)

아래 문장의 앞에 'O' 또는 'X'를 써 넣으세요.

(　　)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　　) 우주는 실제로 존재하며 실재한다.
(　　) 스스로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의존적 존재(contingent)'라고 불린다.
(　　) 과학은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　　) 어떤 물질적인 것은 원인을 갖지 않는다.
(　　)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생겨났다.
(　　) 원인은 항상 그 결과보다 크다.
(　　) 물질과 마음은 같은 것이다.

객관식 질문

다음 중 '우주'에 해당하는 설명은?
(a) 영원한 (b) 스스로 생겨난 (c) 의존적인 (d) 독립적인

모든 물질적인 것은 다음 중 어떤 설명에 해당하는 원인을 가져야 하는가?
(a) 자기보다 큰 것 (b) 자기보다 작은 것
(c) 자기와 같은 것 (d) 해당 없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음 중 어떤 두 가지로 나뉘는가?
(a) 물질 (b) 입자 (c) 동물 (d) 마음

고대에 천문학적 관측을 위해 사용된 암석 구조물은?
(a)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b) 자유의 여신상
(c) 스톤헨지 (d) 록시티

어떤 물질적인 것이 존재한다면, 다음 중 어떤 두 가지를 가져야 하는가?
(a) 결과 (b) 원인 (c) 시작 (d) 자동차 엔진

선택하기

(　　) 서로 관련 있는 항목을 연결하세요.
(　　) 반박될 수 없는 주장
(　　) 원인과 결과의 법칙
(　　) 시작이 있고 끝도 있음
(　　) 에너지 보존 법칙
(　　)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
(　　) 원인은 결과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있어야 함
(　　) 모든 것이 점점 닳아 없어짐
(　　) 영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

(A) 우주　(B) 물질　(C) 원인　(D) 마음　(E) 우주론적 논증
(F) 열역학 제1법칙　(G) 겉보기상 명백한 사례　(H) 열역학 제2법칙